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7. 12 ~ 2020. 8. 1 제229호



▶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나 성도들. 제공: WMM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기쁨이 넘친다

예배를 마친 가나의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매들이 머리에 장의자를 이고 간다. 이색적이다. 보통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것 같은데 자매들이... 그것도 어떤 자매는 머리에 인 의자를 한 손으로만 잡고 간다. 익숙해 보인다.

자신에게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색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거하고 있

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천지를 창조한 권능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는 일이 그렇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아들 예수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다. 사명을 마치고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GPNEWS]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신명기 4:33~34)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옳다 하느니라”

기독교계, 평등 역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한반교) 등 대부분 기독교계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교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한교총 이사장인 김태영 예장통합 총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도와 달리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30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

벌하겠다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교는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발족모임을 갖고 “각 교단에서 동성애대책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나 차별금지법위원회 등을 통해 교단 별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제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대처를 모색할 필요가 너무 절실하다.”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동성애대책위원들이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엄청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에

제시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의된 지 3일 만에 9000여 명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안**씨는 “제발 미래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고, 잘못된 법으로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과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이 주도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동참자가 5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목회자가 7807명 참여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에 3일 기준 7만 명이상이 참여해, 11개 청원 중 최다 동의를 얻고 있다. [GPNEWS]

다음 호는 8월 2일자로 발행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13)

복음에 무지(無知), 무시(無視), 무관(無關)한 태도는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는 증세가 신자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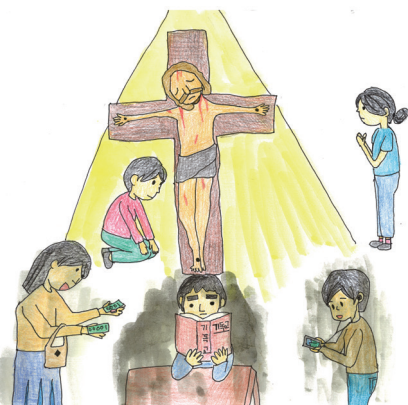
의 반응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세 가지는 무지, 무시, 무관입니다. 보편적인 반응은 ‘무지(無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서 자신을 움직여 갈 만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 동의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거나 따르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시키면서도 자신은 절대 예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고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신자들은 복음을 ‘무시(無視)’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공부 1과 정도로 또는 세례문답용, 전도용 정도로 취급하며 복음을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후의 삶은 성화 내지 성숙이 가장 필요한 기독교의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받기까지만 필요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론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엄청난 것이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부딪쳐서야만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도 특별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 장로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 지식, 기독교적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도 내 삶에 아무 감격도, 감동도, 열정도, 은혜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혀 실제되지 않은 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삶을 살면서, 확신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우깁니다. 당신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년 전화는 삼기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연방 법원, “쇼핑몰보다 엄격한 예배제한 안된다”

뉴욕주에 대해 예배제한 금지령 발표



▶ 미국 뉴욕의 한 교회. 출처: CBS New York 영상 캡처

미국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계기로 일반모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던 종교모임에 대한 예배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은 뉴욕주가 세속적인 단체보다 야외 및 실내 종교 모임에 엄격하게 적용하려던 정책을 금지하는 ‘예배제한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가 지난달 말 보도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예배모임 등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쇼핑몰, 콘서트장, 레스토랑, 영화관, 놀이시설 등 2단계 산업들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게리 사프 판사는 쿠오 모 뉴욕주지사와 블라시오 뉴욕 시장이 수천 명이 모이는 흑인 인

권 시위는 지지하는 반면, 종교모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라며, 이들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어기는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목회자를 대변해 온 법률 단체인 토마스 모어 협회(TMS)는 이번 명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행태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초 뉴욕 소재 성직자들은 주 정부가 재개방 지침에 있어 예배 시설에는 세속적인 단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뉴욕 북부 지방법원에 뉴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경제재개 2, 3단계 지침에 따라 종교 시설은 실내 집회 인원은 면적 25%, 야외는 25명으로 엄격히 제한한 반면, 수천 명이 모였던 대규모 시위이나 사업장에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GPNEWS]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심각… 대학살 직면

전 세계 언론에서 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소식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슬람 등 다른 소수 민족의 박해나 펍박 소식은 연속적으로 국내외 유력언론의 국제면을 차지하지만 각국 기독교인들의 소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외면받는 기독교인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이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없는 한 또 다른 대학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중동 지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인 디펜스 오브 크리스천(In Defense of Christians, DOC)’이 최근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한 집단학살 분야의 전문가인 프랭크 울프 전 미국 하원의원은 나이

지리아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들 상대로 한 폭력’과 ‘미국 정부의 대응 실패’는 르완다와 수단 다르푸르에 이어, 또 다른 대학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의원은 “전 세계와 미국이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을 무시했을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면서 나이지리아의 체제 붕괴는 주변국을 불안정하게 하고 수백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어 유럽 등지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년간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에서의 폭력 사태를 ‘대학살’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나이지리아 난민을 초래한 내부적 원인으로 ‘이슬람권 서아

프리카 주(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 그리고 기독교 주민들을 공격하는 ‘무슬림 풀라니(Fulani)족’을 지목했다.

비영리 단체인 ‘대학살감시단(Genocide Watch, GW)’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풀라니 지하드 극단주의자에 의해 살해된 사람만 2만 7000여 명에 이른다.

GW 설립자 그레그 스탠튼은 나이지리아의 폭력 사태를 대하는 미국의 노력은 대화나 화합을 통한 ‘갈등 해결 정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테러 단체’를 비롯해 군대와 경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PNEWS]

초5 성교육… “혹시 동성애자인가요?” 설문조사

초등학교 5학년 수업시간에 동성애와 이성애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가 이뤄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3일 보도했다.

한 혁신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시간에 배포된 설문지에는 “(자신의) 사회적 성(젠더)은 무엇인가?”를 묻으며, “여성적, 남성적, 그리고 중성적” 세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

아래에 설명을 붙이며, “어머니가 수행하는 집안일, 바느질, 행동거지가 양전하면 여성적”이며 “아버지가 수행하는 축구 같은 거친 운동,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집안의 전기 수리 등은 남성적. 그리고 이들이 섞이면 중성적”인 것이라고 ‘사회적 맥락’을 규정했다.

그런데 마지막 문항에선 “선호도(Feel)는 어떨까요?”라며 “이성을 좋아하는지, 동성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지”를 물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를 접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아직 안정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여도 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제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26 ~ 7.4)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코로나19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때 ‘습격’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인도에서 뉴델리 인근 위성도시 그루그람에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 당국이 수도권에 메뚜기 경계령을 내렸으며 그루그람 주민들은 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28일 보도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국가에 큰 피해가 닥쳐왔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는 은혜의 기회로 사용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국, 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7월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제한적 비접촉 면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5달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입소자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

주님, 코로나에 걸릴 두려움보다 현재의 고립감, 우울감에 괴로워하는 요양병원과 시설 내원자들을 위로해주소서. 가족의 위로가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사 복음으로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 주소서.

시리아 내전 아동 대부분, 전쟁 트라우마 겪고 있어

시리아 내전을 겪고 있는 아동 대부분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공황장애와 자기 고립감, 야뇨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시리아 실향민 아동이 겪는 정신 건강 실태 보고서’에서 밝혔다.

끝없는 내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리아의 어린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 이 땅에 교회와 증인들을 더욱 일으켜 주소서.

러시아, 이상고온과 산불 기승 중에 ‘때 아닌 눈’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이 맹위를 떨치며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은주가 급강하하며 6월에 때 아닌 눈이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더워야 할 때에 눈이 내리는 러시아의 모습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나팔과 같은 이 현상들 앞에 러시아 정교회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7월 13일 ~ 8월 1일

7월 13일 ~ 7월 18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전북 완주 / 복음과기도의집(김**)010-4743-9397, 7.13~7.17(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7.14(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7.16(0시)~17(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정**)010-3697-0641, 7.17(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7.1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그 외 5교회 진행중.

7월 20일 ~ 7월 25일 ▶경기 남양주 / 로고미션(황**)010-6796-151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7.20(10시)~20(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7.20,22~25(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7.21,23~2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7.24~25(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7.24(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6교회 진행중.

7월 27일 ~ 8월 1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7.28,31(14~18시) ▶경북 울릉 / 의정부열방교회(김**)010-2805-4641, 7.31(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7.3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7.31(09시)~8.1(12시) ▶대구 달성 / 하늘교회(정**)010-9557-5154, 7.31(22시)~8.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기획 |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 (1)

코로나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 교회와 선교의 미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세계기도정보의 저자 제이슨 맨드릭이 코로나19의 영향과 의미를 ‘글로벌 전염, 글로벌 선교’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와 선교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책자는 오퍼레이션월드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열방의 현실을 모아, 기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covid-19.operationworld.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책자 내용의 요약이다.

미지의 세계로 가다

우리 세상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부분적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전쟁, 이상 기후, 자연 재해, 유행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번성하며 놀라운 성공을 누려왔다. 때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이때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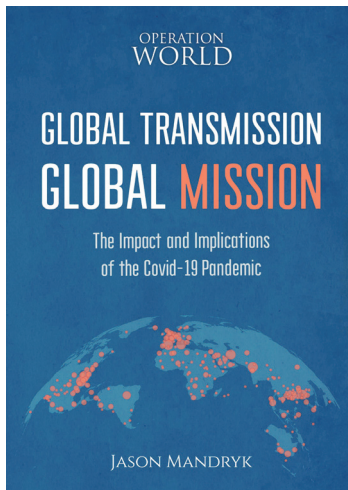
또 정상적이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굳이 돌아갈 이유는 없다. 물론 우리가 집단면역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래계획은 어떻게 세워야할까? 서구사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배워야 할지 모른다. 진리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도 중요하다. 과거 우리는 단편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특정결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헛된 믿음과 데이터를 복음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옷을 입히려는 애쓸 필요는 없다. 어떤 선택은 별처럼 빛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가치를 잃을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

세계화는 전례 없이 타격을 받고 있다. 여행 규제로 세계화가 비틀거리다 멈춰 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왜곡된 민족주의가 급증할 것이다. 이럴 때 각 공동체는 외부인에게 폐쇄적으로 대하며 심지어 악마화하며 증오의 쓰나미를 토해낼 수도 있다.

긴장이 고조되면 건전한 시민담론이 희박해질 수 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치 경제적 이슈들이 이



▶ ‘글로벌 전염, 글로벌 선교’ 표지

미 깊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 독재자들은 권력의 틀을 굳게 할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및 사회보내는 권위주의를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퇴화시키고, 통제력을 경험한 정부는 시민들에게 더 큰 통제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빈약한 보호장비를 갖춘 의료인들이 고위험군으로 내몰리고, 중국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삭제되고 이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또 권력은 이를 틈타 홍콩 민주화 시위 지도자를 체포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빅 브라더’가 코로나19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우리 모두를 주시하며, 프라이버시 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또 권력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종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지원하는 원조의 무기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디지털 라이프가 일상화되고 오프라인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 건강 및 관련 건강 문제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런 과도기에 나타날 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때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고 사역자를 모집해 훈련, 파견하려는 선교단체, 선교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가장 빠르고 최고의 방법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최후 승리가 되지 않을까?

경제 영역의 변화

지금 세계는 전 세계의 불황을 초래한 2007~2008년보다 경제수치에서 더 큰 후퇴를 직면하고 있다. 인도의 실업률은 무려 2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0년 4월 한 달 동안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나

머지는 소외되는 거대한 부의 불평등을 목도할 것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디지털 기반 기업은 주식 시장 가치가 올라가지만, 소상공인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대저택의 소유자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또 개인 리무진과 제트기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10억의 빈민 거주자들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고투할 것이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때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점거운동(Occupy Movement)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염병의 고통을 겪다가 절박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스템보다 불공평한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예수 복음은 인간 개개인이 추정할 수 없는 가치와 무분별한 이익 추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런 시련을 통해 경제성장이 우상이며 진정한 인류의 번영은 GDP 같은 수치를 넘어 더 많은 것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은 화폐보다 사람의 가치가 중요함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게 하였고, 성전 앞 상인들을 청소하셔서 지역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돼지 떼를 몰살시키셨다. 경제가 중요한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대 기독교인의 증언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할 일이 많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 기간 기독교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기독교를 해석할 것이다. 즉 기독교인이 곧 메시지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에 떡칠을 하기도 한다.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이슬람권 선교사로부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슬람의 대응이 무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코로나가 이교도의 질병이라며, 모여서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그 덕분에 모스크는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 됐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위기의 시대에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하며 시민의식은 위축될 수 있다. 또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 기독교인은 더 이상 세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성령님은 정치의 교체보다 우리의 정치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이 강요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뉴스를 이해하고 시사 문제를 해석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독교인은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증언을 차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는 많은 음모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설혹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명하신 일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유튜브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선견지명이 엄습한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함, 온유함, 정직함으로 감절의 영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 교회 콘텐츠 이용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1억뷰를 돌파한 한성교회 유년부 예배 실황. 출처: 유튜브 채널 한성교회 캡처

이 위기는 번영복음을 퍼뜨리던 사람들의 영적 파산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반면, 기독교인의 이타적인 결단력과 선행, 관용은 강력한 믿음의 증거다. 바울 사역의 특징은 이방교회에서 모금을 받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 때, 비기독교인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봉쇄기간 중 교회 생활

기독교는 그동안 수많은 재앙과 화재, 그리고 조직적인 박해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최근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것은 부와 여가를 동반한 쾌락주의와 방탕이다. 그중 더 심각한 위협은 기독교인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이상숭배다. 하지만 코로나로 교회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을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움직인다면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건강한 교회는 풀뿌리처럼 세워

지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는 가장 충실하고, 제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가장 역동적인 교회 개척운동은 웅장한 건물보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이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에 만연한 위상을 부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교회가 화석화된 기관이 아닌 관계적 네트워크로 더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안락한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이란이나 베트남처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닮아가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 시대는 종말인가. 소그룹 없는 대형교회들은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등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온라인 예배 생중계 참여로 전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 어떤 유형의 제자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클릭 숫자를 영혼과 동일시하는 숫자 게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이유로 우리가 아웃리치나 복음 전도 모두를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다. 어려운 시대는 어떤 형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친구들과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야기, 노래, 영화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 또 우리는 대부분 불신자들을 포함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아웃리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기간에 봉쇄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별한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행동하는 인간(human doing)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간(human bein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은 기억할만 하다. <계속>

[GPNEWS]

번역=본지 국제팀

기획 | 창조 이야기 (37)

공룡은 기후 변화와 사냥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기독교인들은 1800년대 성경을 '공룡'에 맞추려고 간격론에 타협했다. 그리고 사탄에게 공룡을 내주었다. 덕분에 공룡에 대한 많은 이론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멕시코의 유카탄반도 인근에 떨어져 공룡이 멸종 됐다는 설(說)이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과학자는 “공룡은 자신들의 방귀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열을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정말 공룡을 멸종시켰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됐다.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 그들을 멸종시켰는가?”가 아니라 “그들은 멸종했는가?”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잘못된 주제에 대해 논쟁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잘 한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이

렇게 질문한다. “공립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쳐야 합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좋은 질문이군요. 그것에 대해 기꺼이 의논하죠.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있어야 합니까? 만일 공립학교가 있어야 한다면, 그때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마 당신이 결정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이 정부에 속해 있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아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은 부모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

공룡은 19C 이전까지 용으로 불렸다

방주에서 내려온 공룡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후는 홍수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홍수 이전에 사람



▶ 4세기 초기 기독교 순교자인 성 게오르기우스(Georgius)가 용을 죽이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스페인 세인트 조지 예배당 벽화.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캡처

들은 900살까지 살았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에는 400살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는 200살, 그리고 100살까지 살게 되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첫째, 머리 위의 장막이 없어졌다. 둘째, 땅은 더 이상 미네랄로 차 있지 않았다. 그 전에는 식물이 매우 잘 자라 온 땅을 뒤덮었고, 대기압도 달랐다. 나는 홍수로 하늘의 물 장막이 붕괴되어서 사라졌다고 믿는다. 햇빛은

방사선 등을 생산하는데 이를 막아줄 물의 장막이 사라진 것이다.

공룡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기후 변화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아마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공룡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룡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용이라고 불렀다.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1891년

까지도 공룡은 사전에 없었다. 인류 역사 대부분 그것들은 용이라고 불렀다. 용은 성경에서 34번 언급됐다. 사람들은 ‘공룡은 성경에 없다.’고 말한다. 맞다. 그 단어는 1841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1611년에 번역된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다.

용은 1946년도 사전에 ‘지금은 희소한’이라고 적혀 있다. 홍수 후에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용 옆에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의 캅 카운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 애틀란타 근처의 숲 속에 회색 곰은 없다. 그러나 300년 전에는 수백 마리였다. 회색 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 지역에서 문명을 이룰 때 크고 사나운 동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다. 문명이 시작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온라인 복음 상담, 제자 양육... 1.5개월간 수백명 접촉

최근 3명의 무함마드 형제가 디지털 스마트 사역팀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슬람 전통 이름인 무함마드는 많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1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앙생활에 아직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방황하다가 명목상 신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우리와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신앙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디지털 스마트 온라인 사역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회나 가톨릭을 다니는 명목상 신자들도 접촉해 신앙적인 지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기뻐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SNS의 복음 영상 보고 반응한 사람들과 교제

두 명의 다른 무함마드 형제들은 강성 이슬람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모두 시리아 사람입니



▶ 소셜미디어(SNS)로 복음을 나누며 양육하고 있다. 제공: 정바울

다. 한 형제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이 매우 심하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와 온라인 채팅으로 복음을 듣고 여러 동영상 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 무슬림이 알게 되면 명예살인으로 죽임

을 당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따돌림 및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제는 수년째 부인과 딸을 시리아에 두고 혼자서 레바논에 거주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 딸을 다시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영접 후에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무슬림 지역사회에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저는 이곳에서 수십 명의 또 다른 무함마드와 그의 무슬림 형제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소망의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디지털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전도지나 예수 영화, 복음 동영상 등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은 5만 644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개별 접촉을 통해 대화를 나눈 사람은 306명, 이 기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13명, 정기 양육,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32명, 디지털 성경을 요청해서 전

달된 사람은 42명에 이릅니다.

비대면 교제로 시작, 온라인 전도에 호응 높아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가 페이스북 광고비로 원화 8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팀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레바논 전국과 시리아 내부 일부 지역,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물질적인 바람으로 우리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서 외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GPNEWS]

레바논=정바울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신부는 신랑만 있으면 된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때에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었듯이,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신부가 잠시 동안 신랑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좋은 집을 구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신부는 “집은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되요.”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다. 신부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신랑이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원한다. 그분만 계시면 영광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우울증에 빠져 있던 옛 생명이 죽고 다시 복음 앞에 서다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임명희** 집사(진접교회)



© 복음기도신문

본지 인터뷰에 응한 임명희 집사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했다. 자신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다고... 기도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6월 어느 날 경기도 자택으로 방문했다. 여느 가정과 같이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 한 교회의 집사로 외견상 평탄해보이는 임 집사의 고백은 깊은 수렁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

-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뽑는다고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성악을 공부했거든요. 불교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죠. 단지 돈 때문에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돈 때문에 교회 갔다가 주님 만나다

- 어떤 힘든 삶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어서 28살에 결혼했어요. 일종의 도피였죠. 그런데 결혼은 여우굴에서 나와 호랑이굴로 들어간 격이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제게 참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 남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어려웠어요. 하도 긍정적 말을 못 듣다보니까 결혼하고 10년쯤 됐는데 남편에게 세탁기를 옮겨달라고 말하는 데 3일이 걸릴 정도였어요. 얘기를 하려면 두근거려서요. 그때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때 두려움과 자기연민, 인정과 평판에 꽂 묶여 있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도 갔지만 약에 의존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게 될까봐 약은 한 번 먹고 다시 먹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 네.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어려운 상황이 실감은 잘 되진 않지만,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셨군요.

“만족이 안 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울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계속 우울한 삶을

살았기에 저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이해해요. 한창 우울증이 심할 때는 누군가 제 귀에다 대고 ‘너만 죽으면 다 끝나. 너만 죽으면 다 해결돼. 편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묶어 놓으면 세 발짝 이상은 못 움직이는데요.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오죠. 제가 그런 상황이었죠. 우울이 깊어질 때는 뇌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전화번호가 외워지지 않아 번호 하나 보고 하나씩 누르곤 했죠. 학대를 받거나 정신적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겪어봤으니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한 거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다 싶다고 생각하니 죽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빨리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 사탄 입장에서 소원성취겠지요.”

- 그 어려운 터널을 어떻게 뚫고 나오셨나요?

“그저 자식의 성공만 바라며 살았어요.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까지 힘들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즈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이 보였어요. 그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보여서 집에 돌아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저도 권사님처럼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목사님만 읽는 줄 알았어요. 전혀 말씀도 안보고 기도도 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셨어요.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내가 밤새 부르짖고 금식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저를 만나 주신 거였죠.”

죄인임을 깨닫자 임한 하나님의 은혜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때 정말 갑자기 제게 은혜가 임했어요. 이유도 알 수 없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갑자기 기쁨이 제 마음에 차고 넘쳤어요. 이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계속 말씀을 보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몇 시간씩 방에 들어가서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만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니 남편이 변하더군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이게 연단이었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한 일 년 정도 남편이 한 주에 2~3번 외식을 하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네요.”

-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집사님을 만나주신 것도 부군이 변한 것도요.

“주님 만나고 3년 정도 지나서 남양주로 이사를 왔는데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김용의 선교사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순회선교단을 알게 됐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당장 할 수 있는 훈련이 복음학교였어요. 처음 복음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 저는 내가 죄인인 것도 잘 몰랐어요.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기뻐기만 하지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후 선교관학교나 중보기도학교를 하면

서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게 되신 거군요.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자매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자매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해결되지 않은 판단과 탐욕, 음란과 같은 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새벽예배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2주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마음속에서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때 알았죠.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니 십자가가 이 죄에서 구원해내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 점점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가셨군요.

“주님을 만나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울지 않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만 울겠다고요. 주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날 구원해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알았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이제는 우울하던 저의 옛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옛 자아의 현상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힘든 일이 있죠. 남편이 화낼 때면 보이는 현상엔 반응이 안 되다가도 한 번씩 옛 습관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다

시 복음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남편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게 하세요.”

- 부군은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남편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남편도 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학교에 갈 수 있도록 8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물론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죠. 하루는 원서 내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편과 점심 약속을 하고 회사 근처로 갔어요. 복음학교 원서를 들고 서요. 그런데 남편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복음학교를 가고 돈은 주님께 기도해서 구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람에게 꾸지 말고 저보고 하나님한테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 정확히 주님이 주셨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는 그렇게 복음학교를 가게 됐죠.”

내가 변하자 남편도 변했다

- 그런데 그 재정을 어떻게 주님이 주셨죠? 궁금하네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15년 전에 청약적금을 들었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남편이 적금을 하라고 해서 들어놨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10년 전에 사업실패로 빚을 많이 지고 있던 터라,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아마 그때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때를 위해 15년 전에 적금을 들게 하셨다고 생각이 됐죠. 너무 완전한 주님이세요.”

- 정말 놀랍네요.

“감사하게도 남편이 복음학교 이후에 저와 함께 훈련을 더 받았어요. 처음에 훈련학교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더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해외 아웃리치를 2주 다녀오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더군요.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한테 맡기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주에

(6면에 계속)



▶ 순회선교단 중보기도학교 훈련 과정 중 K국 아웃리치 팀원들과 함께. 제공: 임명희 집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1)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이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뜻은 ‘나의 특사’다. 하나님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셨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안내서와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노예가 됐다.

이제 이름도 남지 않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직자도 필요 없던 그 때, 까마득히 잊혀진 70년 세월 만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대로 이 포로들을 귀환시켜주신다. 이방 땅 포로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보겠다는 사

람들이 돌아왔다. 귀환 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고난에 부딪히고 좌절을 겪는다. 유혹이 오자 주님의 자비로 돌아온 그 땅에서도 그들은 다시 타락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후통첩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던 모든 책망도, 경고도 딱 끊긴다. 말라기 뒤로 약 400여 년은 신구약의 중간사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긴 시간이다. 그 직전에 말라기서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이 특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후통첩이다.

철벽같이 못 알아듣고 망할 짓하고 형편없이 찌그러진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말 1:2) 하늘이 열

리던 그 날로부터 주님 말씀의 핵심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노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온 천지를 지으시고 기쁨의 에덴동산에 자기를 쫓 빼뺏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드러났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고백을 오늘 다시 들 수 있는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견어졌던 인류 최초의 그 저주받은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창 3:15). 철저히 배신당한 그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일러스트=이예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로 짝 짜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합친 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주

셨다. 표현할 수 있는 농도로 이보다 더한 사랑을 표현할 언어도, 내용도 없다. (2018년 2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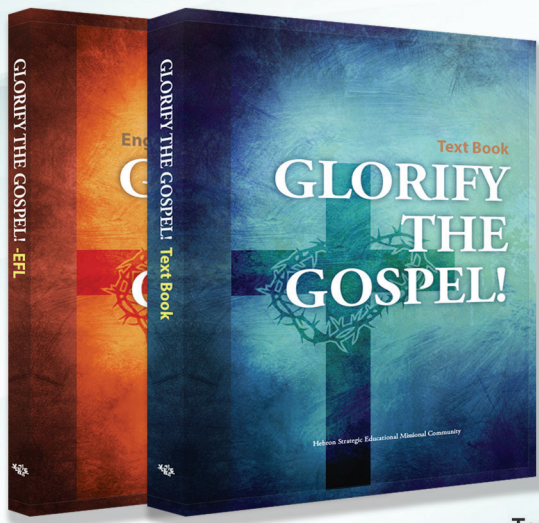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터디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다.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교회와 가정의 기도자로 심으시다

다음 달에 필요한 재정까지 벌게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웃리치를 다녀왔어요. 남편은 일도 할 수 있고 돈 벌게 해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바라는 우리 부부가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면 주님은 또 제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세요.”

-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싶었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있다가 결혼하

고 지금까지 교회에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그분이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3월부터 함께 말씀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열방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52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52 기도책자를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어요. 마침 이번에 선교단체와 연결된 아웃리치팀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 기도를 드디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교회 집사님과 함께 매주 말씀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제공: 임명희 집사

심장 수술의 흉터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증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나는 올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술을 받았다. 이때까지 모든 시간이 은혜다.

폐동맥 판막이 없는 나는 20살이 되면 인공 판막을 넣는 수술을 받게 돼 있었다. 갓난아기 때,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어서 살아났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부모님께 전해 들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나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넘겼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기독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수술이 예정됐던 20살이 됐다. 단기 선교사로 출국을 앞두고 병원의 검진 결과, 심장의 상태가 수술이 급하지 않다고 했다. 덕분에 예정대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나의 건강과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경험하며 2년간의 단기 선교를 은혜 안에서 마쳤다. 그곳에서 2년간 추가로 선교사로서 삶을

드리고 24살이 된 2020년 올해, 드디어 판막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작년 한 해는 내가 거의 처음으로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통증도 있고 몸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했다. 수술을 결정하면서 주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술로 충분하다고 했다.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면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흉터도 크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혈관을 뚫고 장치를 넣어 시술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감사했다. 이 과정을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도 이보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넘겼을 뿐인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시술은 생각보다 아팠고,



일러스트=고은선

아직 회복 기간 중에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 시술 후 초반에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전까지 마음껏 땀을 흘릴 수 있고,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지럼증과 멍이 생기는 것을 보며 약한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스스로 불쌍하다거나 약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나와 같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연약함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심장 수술의 흉터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승리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증표와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겪지 못한 특별한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배경에는 나를 매일같이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이 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 시술과 회복의 시간은 숨차게 달려가던 사역과 현장에서 잠시 멈춰서 더 힘차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은 오늘도 배운다. [GPNEWS]

최이레

그림 묵상



나의 삶이 주를 닦게 하소서

어떤 일에 대해 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심리. 내가 한 행동들이 꼭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욕구. 이런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수치, 고난을 다 받으시며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 온갖 것들을 겪으시며 이루시려 했던 건 '단 하나'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G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北, 탈북자 가족 통해 탈북자 실태조사... 송금액 전액 몰수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 정권이 탈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며, 탈북자들에게 송금 받은 현금을 전액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지 지원은 커녕, 주민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빼앗는 조직폭력집단이 벌일 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이런 조사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아내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

은 "요즘 국가보위성 성원들이 그동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주민들을 세밀히 조사하여 탈북인지, 단순 행방불명 또는 사망인지 여부를 캐묻는 바람에 탈북자 가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위부 조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은 탈북한 가족이 중국에 있는지, 남조선으로 갔는지의 여부"라면서 "처음에는 탈북자 가족의 집을 오가며 조사를 했지만 최근 들어 탈북자 가족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강도를 높여 보위



▶ 탈북자 규탄집회를 하는 북한 주민들. 출처: 유튜브 채널 NORTH KOREA NOW 캡처

부로 불러들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탈북자 가족 조사에서 회령시에 사는 한 여성이 10년 전 행방불명이 되었던 동생에게서 중국 인민폐 5만 위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여성은 고문에 못 이겨 현금 받은 사실을 자백했고 가택수색에서 인민폐 현금이 나와 전액 몰수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동생은 행방불명되고 아버지마저 3년 전에 사망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채

장암 말기 진단까지 받았는데 10년 전 행방불명된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인민폐 5만 위안을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을 체

포한 다음 그들을 협박해 외국에서 위안화를 송금 받은 주민들 명단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탈북자 가족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위부가 탈북자 색출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송금 브로커를

이용해 탈북자를 추적 조사한 적은 없었다."며 "탈북자 가족이 중국이나 남조선에 있는 가족(탈북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 준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GPNEWS]

북,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해 탈북자 고문은 관행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상대로 여전히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6월 26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발효일을 기념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여전히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밝혔다.

모건 오테이저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수용소에서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해외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표준적 관행으로 고문

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연관된 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지목된 국가는 이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짐바브웨 등이다. 성명은 이러한 국가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자백을 강압하며 법치에 상반되는 임의적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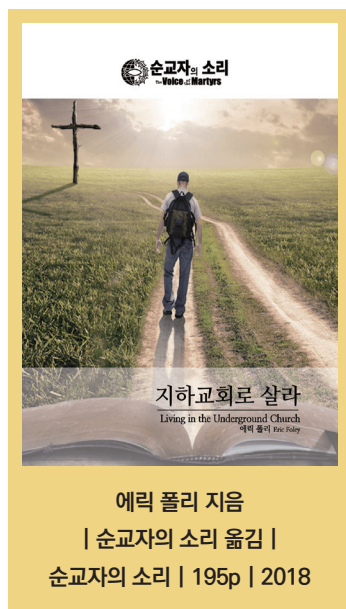
© 복음기도신문

부들 중 일부라면 "우리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들이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생존자들에게 보상 및 재화를 제공하며 고문에 연루된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에릭 폴리 <지하교회로 살라>

세상을 따르든지 구속한 주님만 따르든지 택하라



누군가 진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은 이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말씀에 목숨 걸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 어중간하게 사는

삶은 없다는 말이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발간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책인 '지하교회로 살라'는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한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지하교회의 삶'이라 말하며,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그로 인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교회(지하교회)를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저자 에릭 폴리 목사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지어진 전문화된 대형 교회의 성공 시대가 급격히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과 같은 자유 민주국가들, 흔히 말해 '자유세계'에서 성 혁명과 관련하여 커져가는 문화적 반감과 법적 규제들에 맞서 새로운 형식의 회중, 즉 '지하'교회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지하교회는 이 세상의 금전적, 상업적, 법적, 정치적인 체계들을 거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

한 교회를 뜻한다. 그것은 새로운 모델이 아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보존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북한을 포함하여 기독교가 금지된 50여 개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다.

한국 기독교의 원형이 그랬다.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 회심하게 된 참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한국 기독교인 1세대(1873~1906년)는 오로지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안수를 받은 목사도, 강대상도, 교회 건물이나 교단도, 돈이나 법적 지위, 정부의 승인도 없었지만, 구원의 세례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만찬의 삶이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기독교를 다시 선포하고 회복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독교가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

고 있다. 이 성경을 받고 읽고 들은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랐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았기에 말씀 따로 삶 따르는 있을 수 없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니케아신경을 통해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 정립된 니케아신경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신앙고백들을 담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았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 초기 교인들이 경험했고, 모든 시대와 장소의 참된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듯이, 말씀대로 살면 핍박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 예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길이 어땠는지 이후에 다가올 신앙의 그것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말씀 따라갈수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게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 살아가는 지하교인의 삶을 나의 삶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소위 숨어들어 가는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나그네가 되어버림으로써 제도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삶. 말씀을 좇아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갈망했던 모든 시대와 사람들처럼 '지하교회로 살라!'는 외침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따르든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따르든지 말이다. [GNNEWS]

양동원 선교사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5)

10대 성병 5년간 33% 증가... 교과서, '성관계는 권리'라고 교육

우리나라 10대 성병환자가 지난 5년간 약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성병으로 진료를 받은 10~19세 청소년이 5만 6728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0~19세 성병환자는 2014년 9622명에서 2018년 1만 2753명으로 33%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피하라는 것이 권장되는 성병 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의 성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이 배제되고 있다.

동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09쪽에는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건전한 성 의식과 성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서 "불건전한 성적 접촉을 피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 마약 등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과는 성 접촉을 피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중학생이 성 접촉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YBM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 73쪽은 중학생의 이성교제에 성관계를 정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성 교제와 성

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 유형의 남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시각, 청각 자극에 성 충동을 빨리 느끼고 성행위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부류를 소개하고 있다. 74쪽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성 교제를 시작할 때, 발전할 때, 헤어질 때도 늘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학생 때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해야 함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공교육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성병은 구강이나 피부 접촉만으로도 감염되는 종류의 것들도 있어서 콘돔을 사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콘돔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YBM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23쪽에는 성매개감염병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무분별한 성행위 금지, 안전한 파트너와의 성 접촉, 성행위 시 콘돔 사용"이라는 아주 간결한 설명 외엔 없다. 게다가 천재

2. 이성 교제와 성적 자기 결정권

- ▶ 남녀 성 의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성 교제 시 변화 단계에
- ▶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p>시각, 청각 자극에 성 충동을 빨리 느끼고 성행위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함.</p>	<p>분위기, 대화 등 감정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을 원함.</p>
<p>· 친밀감이나 사랑의 느낌이 부족해도 성행위까지 가능함. · 상대방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락으로 오해함.</p>	<p>· 포용과 입맞춤만, 성행위는 진짜 사랑하게 된 이후에나 가능함. · 거절하면 헤어지게 될까 봐 할 수 없어 피부 접촉(스킨십)에 응함.</p>

▶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중학생의 이성교제에 '성관계'를 정상으로 생각하게 가르치는 성교육 교과서. 출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년), YBM 출판사(p.73) 캡처

교과서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에는 성병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용되던 사진도 사라졌다.

또한 매독 같은 성병은 남성동성애자 사이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2017년 미국 전역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해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매독 퇴치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매독 환자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CDC는 보고했다. 또 남성 동성애자들의 매독 감염 비율이 일반인 남성들에 비해서 106배 높으며, 일반인 여성들에 비해서는 168배 높다고

봤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동성애자는 전체 국민의 1.6%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매독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다. 그러므로 남성 동성애가 성병의 주요 감염경로이지만 보건교과서에서는 성병과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를 '남성 동성애'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에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는 "사실상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포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계속> [GN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5. 28 ~ 6. 1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우수 강주선 김경선 김애심 김정희 김지영 김혜신 노은옥 문미현 박숙자 박현숙 안민자 안수경 유국주 윤경석 이남준 이미영 이영옥 이은주 이준진 이진희 장은희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영광 차상복 차익수 최정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사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감교회 전능자의그늘미네스트리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